

PREVIEW

장준호 개인전 <조율하는 마음대로>  
Jang Junho solo exhibition <Tune it your way>

전시기간 | 2017. 11. 24 금 - 12. 14 목  
오프닝 리셉션 | 2017. 11. 24 금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7. 12. 2 토 16시



© 인터뷰

Q. 전시 제목 <조율하는 마음대로>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부딪치는 느낌이 든다. 영어로 굳이 번역해보는다면 Tune it your way! 정도가 되면 어떨까?

A. 전시 참가자(관객)에게 작품을 대하는 시점을 제안해 주고 싶었다. 예를 들면 “저희식당은 유기농과 친환경 재료만 써서 가격이 조금 비싸니 이해해 주세요”를 손님들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 “자연에서 온 식탁”이라고 상호를 짓는 식이다. 즉 <조율하는 마음대로>작품을 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여기서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비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의적인 비문을 좋아하는 편이다. <조율>과 <마음>이란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을 덜어내고 싶어서 유치한 기교를 부려보았다.

<조율>은 잠자는 하늘님이 이제 그만 일어나서 그 옛날 하늘빛처럼 하는 조율(한영애의 ‘조율’이라는 옛날 노래 가사임)이 아니라 악사가 연주직전에 줄감개를 매만지는 것에 가깝다.  
<마음>역시 ‘네 마음대로’의 마음에 가깝기 때문에 ‘mind’, ‘heart’ 보다 ‘way’가 적합한듯하다. ‘Tune it your way!’라는 번역은 그 면에서 탁월해 보인다. 다만 느낌표의 사용은 고려해 보고 싶다.

Q. 나무를 깎고 다양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오브제를 제작한다. 공사장 부자재, 철사, 나무, 플라스틱 등 특정 개념을 전달하거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재료를 매번 다르게 선택하게 되는 것인가?

A.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질감, 온도, 무게, 가공할 때의 냄새, 강도, 색깔, 상징성(상징차단성), 가격, 가공할 때의 재미, 가공법을 익혀나가는 재미, 등등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고 작업실에 굴러다니는 걸 쓰기도 한다. 편애하는 재료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소재에 질려버려서 당분간 다른걸 써보고 싶은 충동도 가끔 느낀다. 참 어려운 질문이다.

Q. 2014(-)2010)년에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뒤집어서 입간판을 만들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도 한 눈에 잘 읽히지는 않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전시에서 활용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작업에서 활용하는 이유가 있는가?

A. 내 작업은 시작은 군대시절 GOP에서 함께 생활했던 “행복”이라는 8미터 크기의 대북 입간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휴전선 끝의 입간판이 북측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큰 입간판의 뒷면만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행복이라는 글자가 반전된 실루엣과 대형 사인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은 대북, 대남방송과 함께 지금까지 내 기억 속에 마치 기념비처럼 남아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참 신기한 단어인 것 같다. 우리 집 고양이부터 외신뉴스에 나오는 이름 모를 나라의 사람까지 아직 행복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해석하는 관점, 즉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은 다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행복은 행복이라는 단어의 내용보다 행복이라는 글자가 (8미터 간판처럼) 더 강하게 다가온다. 즉 “행복”이라는 단어가 각국 혹은 각자의 해석을 지나 다시 “행복”이라는 단어로 돌아가는 격인데 이 구조가 재미있어서 자주 쓰고 싶어지나보다.

Q. 이전의 전시에서도 관객이 직접 오브제를 만지거나 참여하는 형태로 작업과 관계 맺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참여가 주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인가?

A. 작품을 만진다고 해서 작품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거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관객의 참여, 혹은 개입의 방법이 반드시 물리적인 접촉이나 조작 가능성에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각전시가 대체로 촉각적인 접근을 제한했기 때문인지 손을 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참여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나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꼭 만져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열심히 악수도 하고 그러는 것 같다. 내가 조각가가 된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작품을 만들면서 만지는 시간을 즐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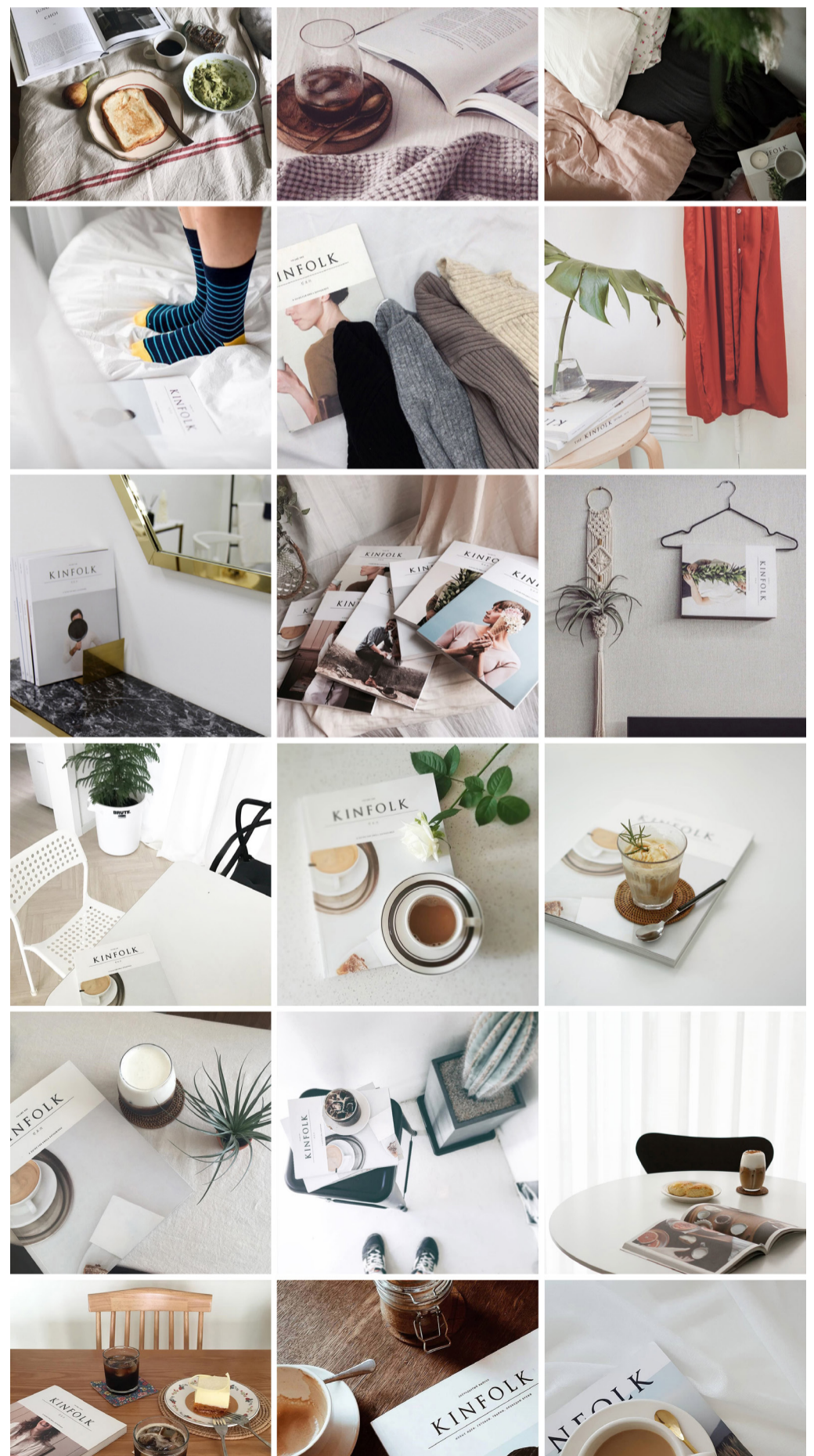
이미혜 개인전 <국민 취향>  
Lee Meehye solo exhibition

전시기간 | 2017. 12. 23 토 - 2018. 1. 18 목  
오프닝 리셉션 | 2017. 12. 23 토 18시  
아티스트 토크 | 2018. 1. 13 토 16시

© 작가노트

소비 자본주의와 디지털 네트워크가 만나 탄생한 ‘좋아요-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소통하고 소비하도록 독려 받는다. <국민취향> 전시에서는 자본이 생성해내는 유행의 논리를 자신의 고유한 욕구라 여기며 지속적인 변화와 소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강제하고 노출하는 소비문화의 단면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요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인테리어, 온라인집들이, 집스타그램 등에 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국민취향’이라는 집단적 행동패턴을 가시화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적인 욕구와 고유한 취향이라는 것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그토록 열광적으로 쫓는 유행이라는 것이 단지 일시적으로 유효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추구하며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좋아요-자본주의’가 제안하는 소통과 소비가 어떻게 개인성을 상실하게 만드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유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VIEW with PHOTOS

2017 작가미술장터 <블라인드 데이트 Blind Date> 2017. 11. 15 수 - 2017. 11. 19 일

78명(팀)의 작가들의 240여점의 작품들로 이루어진 블라인드 데이트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관객분들과 작가님들 모두 만족하는 행사였기를 바랍니다.



연계행사 - 북 컬렉션 세미나 2017.11.18. 4pm
임경용 더북소사이어티 대표는 서적의 제작 및 유통 등과 함께 독특한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계행사 - 해외 아트 시리즈 2017.11.18. 5:30pm
포르투갈의 비영리 공간인 Carpe Diem의 디렉터 로렌소 에그레자(Lourenco Egreja)는 21점의 에디션 작업을 선별하여 본 행사에 참가하는 동시에 포르투갈의 미술 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10회 PT & Critic 전병구 개인전 <Afterimage> 2017. 10. 13 금 - 2017. 11. 2 목



계속되는 실험은 자연스러움을 향했고 고민은 흔적을 남겼다. 전병구 작가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인정과 눈의 확신이 가득 찼을 때 작품을 골라 벽에 걸었다. 작가는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보는 이(나)는 그 건조한 배경 속 사물에 다가갔다. 덩그러니 놓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걸 묻고 싶지 않다. 내가 내게 묻은 건 비누통, 검정 아우디, 진달래보다 덜 외로운가였다. (글. 한황수 코디)



1 | 오프닝 리셉션, 10월 13일 2 | 작품 <Baseball Stadium> 3 | PT & Critic, 10월 21일 (패널: 강석호, 안소연)

SHORT-CUT NEWS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오인환 ON-GOING 개인전 Inhwan Oh's Solo Exhibition 2017.11.15~12.9일 호아드카페 이반이름프로젝트 호아드아트 파티 Ivan Party 콘텐츠공작소 Ball of Contents NAME PROJECT 2017 가을, 서울 진행형 HOARD Fall 2017, Seoul

오인환 작가는 2001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들'을 <ON-GOING> 전으로 호아드 갤러리에서 진행 및 전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광 작가의 오픈박스에서 열리는 스크리닝 프로젝트 : 동시상영 #8 <아! 스포츠>에 참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광, 오우희, 황귀영, 카간 David Kagan, 아일라 한센 Aila Hansen

신광 작가는 오픈박스에서 열리는 스크리닝 프로젝트 : 동시상영 #8 <아! 스포츠>에 참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노은주, 박선민 작가는 2017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1기 오픈스튜디오를 가졌습니다. 2017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COUNTERTIME SANGDON KIM RHO JAE OON CHOI SUNGHUN + PARK SUNMIN PLATFORM-L 2017. 10. 12 - 11. 12

최승훈, 박선민 작가는 PLATFORM-L에서 열린 그룹전 <카운터타임>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윌링앤딜링 우란기획전 2017.11.8 wed 29 wed 프로젝트박스 시아

홍승혜 작가는 프로젝트박스 시아에서 2017 우란기획전 <윌링앤딜링>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홍승혜 작가는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 그룹전 <온도의 환기\_네 개의 방>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변상환 작가는 부평아트센터 꽃누리 갤러리에서 그룹전 <도시채집>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성우 작가는 온그라운드2에서 개인전 <땅위의 밤>을 가졌습니다.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PERIGEE TEAM PROJECT 2017 고재욱 권혁규

블라인드 데이트를 공동 진행한 고재욱 작가는 페리지 갤러리 팀 프로젝트 2017 <ABCDE>에 참여했습니다. 2017년 12월 8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W&D NEWS

김인선 디렉터는 각종 행사와 전시 준비로 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다행이 아닌 건 연말·연초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꼭 그럴 것이다.

최정윤 큐레이터는 오랜만에 통역을 했다. 지난 10년간 포르투갈의 빈 궁전에서 레지던시를 운영하며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로렌조 에그레자와의 만남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신기하기도, 또 신이하기도 했다.

한황수 코디는 서른 살에 펼쳐질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작업실, 에세이 그리고 여러가지.

이행진 인턴은 윌링앤딜링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방배동 골목의 카페들을 정복할 꿈을 꿨으나 스타벅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근준 인턴은 KUMA(경희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관)에서 졸업전시회를 가진다. 2017. 12. 4 - 12. 15

오시는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 2017년 11월 24일